

류승룡 다작·송강호 재난영화...조정석은 드라마

‘극한직업’ 주연 류승룡 내년 4편 송강호 항공 재난영화 ‘비상선언’ 류준열·마동석은 판타지 세계로 조정석은 tvN ‘슬기로운...’ 선택

2019년 흥행 상위 한국영화의 주역들이 2020년에도 도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흥행 킹’이란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5명의 배우들이다. ‘극한직업’의 류승룡과 ‘기생충’의 송강호, ‘봉오동 전투’의 류준열, ‘나쁜 녀석들: 더 무비’의 마동석 그리고 ‘엑시트’의 조정석이 그 주역이다. 내년 스크린과 안방극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펼친다. 장르의 확장, 세계를 향한 움직임도 이들의 몫이다.

●류승룡·송강호...관객 신뢰가 힘

올해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인 ‘극한직업’(1626만5618명·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류승룡은 관객의 전폭적인 신뢰에 힘입어 활동 무대를 넓힌다. 내년 공개하는 작품만 네 편이다. “촬영현장이 즐거운 소풍 같았다”고 밝힌 영화 ‘입술은 안돼요’를 비롯해 이준익 감독의 사극 ‘자산어보’ 촬영에 마쳤고,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 공개도 앞뒀다.

류승룡은 뮤지컬 장르 영화에도 도전한다. 현재 염정아와 촬영에 한창인 ‘인생은 아름다워’를 통해서다. 아내의 첫 사랑을 찾아 나선 부부의 이야기가 누구나 알 만한 우리 대중가요의 명곡을 통해 그려진다.

다작을 택한 류승룡과 달리 송강호는 숨고르기 중이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한국영화 100년사를 새롭게 쓴 ‘기생충’(1008만 5123명)의 주역인 그는 5월 작품 개봉 이후 봉준호 감독과 유럽 및 북미 투어를 함께하고 있다. 내년 1월5일 골든글



로브, 2월9일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기생충’ 관련 일정을 마무리한 뒤 새로운 각오로 항공 재난영화 ‘비상선언’에 돌입한다. ‘공동경비구역 JSA’부터 ‘밀정’까지 만날 때마다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이병헌과 네 번째 호흡이란 점에서 더욱 기대를 높인다.

●조정석·류준열·마동석...휴머니즘, 판타지 세계로

주연영화로 거둔 흥행은 배우에게 과감한 도전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다. 판타지 장르를 개척하는 류준열과 마동석도 마찬가지다. 올해 흥행 4위인 ‘봉오동 전투’(478만7538명)와 5위인 ‘나쁜 녀석들: 더 무비’(478만7538명)로 티켓 파워를 증명한 두 배우는 나란히 판타지 세계로 관객을 안내한다.

류준열은 ‘암살’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이 5년 만에 내놓는 새 영화의 얼굴이다.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여러 인물이 시간을 넘나들면서 겪는 이야기의 판타지 대작이다. 김태리 김유빈 등 또 다른 스타들도 참여해 2부작을 동시 촬영하고 순차 공개한다.

마동석의 무대는 할리우드다. 마블스튜디오의 새 히어로 시리즈 ‘이터널스’의 주연으로 발탁돼 현재 안젤리나 졸리 등 스타들과 촬영에 한창이다. 흥행 불패로 통하는 마블 히어로 시리즈의 주연으로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관객과 교류한다.

반면 조정석은 쏟아지는 시나리오를 뒤로하고 드라마로 향한다. 흥행 3위인 ‘엑시트’(942만5890명)의 성공을 이끈 그는 내년 상반기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신작으로 택했다. 전매 특허 코믹 연기를 잠시 내려놓고 20년 지기 의사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펼친다. 조정석은 “응답하라” 시리즈를 만든 감독과 작가의 작품을 재밌게 봐 온 입장에서 이번 작품을 재밌고 기대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혜리 기자 go1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4

아이유, 조손가정 아동들에게 1억 기부



아이유

가수 아이유가 조손가정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아이유는 23일 조손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써 달라며 1억 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그는 앞서 2015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선정을 이어왔다. 한부모 및 조손가정 어린이들은 물론 어려운 환경에 놓인 대학생들을 위해 2000만 원을 내놓기도 했다. 11월 미니 5집 ‘러브포엠’을 내놓은 아이유는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콘서트를 마쳤다.

EBS “팽수, 시급제 출연료 사실 아냐”



팽수

‘대세 캐릭터’ 팽수가 시급제로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세간의 소문에 EBS가 부인했다. EBS는 23일 “팽수의 출연료가 시급제라는 소문을 사실 무근”이라면서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정식 출연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팽수가 시급제로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 논란을 모았다. 한편 팽수는 최근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도 출연해 녹화를 마치고 내년 1월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박유천, 내년 1월25일 방콕 팬미팅



박유천

가수 박유천이 내년 1월 25일 태국 방콕에서 팬미팅 무대를 연다. 박유천은 이날 방콕 장외타나홀에서 팬미팅 ‘러브 아시아 위드(LOVE ASIA with) 박유천’을 펼친다. 박유천은 이날 수익금 일부를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막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벌써부터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뒤 올해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윤희에게’ 불법영상파일 경찰에 의뢰



영화 ‘윤희에게’

김희애가 주연한 영화 ‘윤희에게’의 불법 영상파일이 나와 제작사 측이 대응에 나섰다. ‘윤희에게’ 제작사인 영화사 달리기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20일 영화의 VOD 서비스를 시작한 뒤 영상이 SNS와 유튜브 및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신고 및 경고 조치는 물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을 의뢰해 모든 피해에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관록의 스타’ 2인의 새로운 도전

‘탑골 지드래곤’ 양준일, 데뷔 30년 만에 팬미팅

‘온라인 탑골공원’ 열풍에 31일 전좌석 매진 추가 팬미팅 요청 쇄도...광고계도 러브콜

가수 양준일이 활동을 중단한 지 18년 만에 탄탄한 팬덤을 확보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일회성 관심을 넘어 그에 대한 ‘재소환’이 이뤄지고, 나아가 활동 재개까지 요구하는 팬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방송은 물론 광고계에서도 그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며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쯤 되면 신드롬급 인기다.

1990년대 활동했던 양준일은 최근 ‘온라인 탑골공원’ 열풍을 타고 ‘탑골 지디’라 불리며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좀처럼 그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더니 최근 데뷔 30년 만에 팬미팅이 추진됐고, 급기야 단 하루 열리는 팬미팅은 빠른 속도로 전 좌석을 기록했다.

23일 팬미팅 주관사 위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31일 서울 세종대 대양홀에서 열리는 팬미팅 ‘양준일의 선물’은 2회 전 좌석 매진됐다. 20일 예매 첫날 접속자가 대거 몰리며 예매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서버 다운되는 등 진풍경이 일어났다. 다음날에도 양준일의 이름이 온라인 검색어 순위를 도배하기도 했다.

최근 팬카페도 생겨났다. 700명으로 출발한 회원 수는 23일 현재 4만 명을 넘어섰다. 팬층도 다양하다. 현

재 50세인 양준일은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의 팬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온라인에서 불어선 ‘탑골 지디’라는 애칭처럼 여전히 변치 않은 외모 등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 팬들에게서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온갖 고생을 한 사연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팬들은 더욱 늘고 있다.

인생역경 등 극적인 삶을 산 그에게 방송가 역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를 섭외하기 위해 팬미팅 주관사를 통해 찾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레트로 열풍이 한창인 광고계도 그를 모델로 내세우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을 재개해 달라는 팬들의 요청도 잇따른다. 1990년대 세련된 외모와 시대를 앞서간 패션과 음악 등을 선보였던 만큼 지금 이 시점에 활동해도 충분하다고 팬들은 입을 모은다. 팬미팅 주관사 측은 23일 “추가 팬미팅 요청이 잇따르는 등 대중문화계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자리는 그가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만큼 추후 다른 자리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양준일

‘사팔라’ 김영철, 유튜버 된다

채널 ‘영철마블’ 먹방·즉석만남 콘셉트



김영철

‘사팔라’ 유행어를 탄생시킨 배우 김영철(66)도 유튜버로 향한다.

김영철이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철마블’의 문을 연다. 젊은 시청자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올해 가을부터 유튜브 전문 제작진과 만나 계정을 준비해온 김영철은 ‘먹방’부터 브이로그까지 다양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길거리에 서 만난 시민들과 즉석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유튜버들의 필수코스인 카페를 방문하는 제품 리뷰 콘셉트도 있다. 평소 가깝게 지낸 동료 연예인들도 ‘찬조출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송 중인 KBS 1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로 뽐낸 친근한 매력을 더욱 과시할 예정이다.

김영철은 배우로서 연기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세대와 소통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굳히며 유튜브 진출을 결심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사팔라 열풍’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한 SBS ‘아인시대’(2002) 속 대사 ‘사팔라’로 얻은 인기가 이번 도전의 토대가 됐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의 기발함에 놀랐다”는 김영철은 유튜브 공부에도 한창이다. 제작사 레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3일 “그가 직접 아이디어도 내면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덕화티비’를 내놓은 이덕화(67)에 이어 김영철까지 유튜브에 나서면서 ‘베테랑 배우’들의 도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영화 ‘타짜’(2006)의 ‘곽철용’ 캐릭터로 인기를 끈 김응수(58)도 래퍼 머쉬베놈의 노래 ‘버즈맛’에 피처링을 하는 과정을 유튜브 계정 ‘스트릿캣’에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